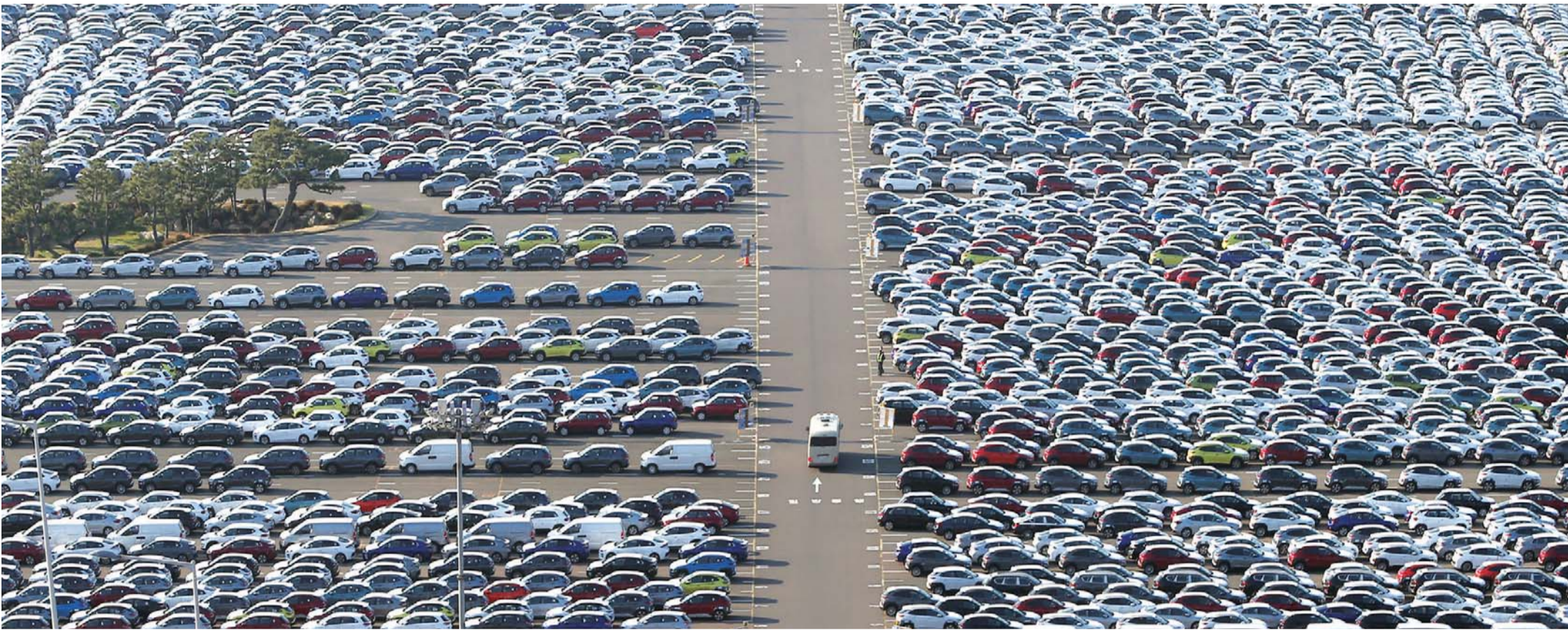


자동차 수출 반토막 ... 협력업체 도산 위기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악화해 대외교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이달 국내 자동차 수출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영세 협력업체 등 자동차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유동성 33조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4월 수출 전망에 따르면 이달 자동차 수출은 12만658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것에 따른 것으로, 수출 길이 막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생산 물량의 61%가 외국으로 나갔고, 앞서 지난 1~3월 1분기 완성차 수출도 전년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수출 막혀 ... 4월 수출 43% 감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산업 붕괴 막기 유동성 자금 33조 필요”

대비 17.6% 줄어든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90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는 이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기다. 국내 완성차의 수출감소에 해외 완성차 업체 납품 차질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수조원대인 대형 타이어 업체도 휴무에 들어가 공장가동을 멈추고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2~3차 부품업체의 타격은 더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부품전문업체들은 코로나19사

태로 2월부터 완성차 공장 가동중단이 이어지며 매출이 감소하고, 현금이 바닥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 부품·협력업체들은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임금 지불 유예와 삭감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현장직 단축근무와 순환휴무, 관리직 임금 20% 삭감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여을 인수, 대출금 만기연장, 세금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하반기 부품·협력업체의 연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액(2015년 기준, 통계청·

한국은행)은 190조원으로 제조업의 12%를 차지하며, 부가가치는 53조원(제조업의 9.4%), 수출은 656억 달러(총 수출의 12.1%)다.

판매, 정비, 주유 등 전후방 산업의 간접고용까지 감안하면 총 고용인원이 178만명에 달한다.

국내 완성차·부품업체가 당장 필요한 공장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수출금융 등 유동성 규모가 32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긴급 대출은 심사가 오래 걸리는 시중은행에 맡기지 말고 중앙은행이나 국책은행이 직접 대출해야 한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세 인하를 최소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토요타, 중고차 가치보장 ‘인조이 스위치’ 출시



토요타코리아는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함께 중고차 가치보장형 운용리스 프로그램인 ‘인조이 스위치’ (Enjoy Switch)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조이 스위치’ 운용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고 2년 후 새로운 토요타 차량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경우 고객은 최초 선택한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신차가격의 최대 75%까지 중고차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월 리스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2년 후 초기비용의 부담 없이 새로운 토요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2회 기아차 청소년 문학상’ 공모 전국 중·고교 청소년 대상

기아자동차는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2회 기아차 청소년 문학상’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 청소년 문학상은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 발굴을 통한 인문학적 정서 함양 및 자립 도움을 위해 기아차가 신세계문학,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시행하는 문학 작품 공모전이다.

기아차는 시와 산문 두 부문으로 나눠 응모작품을 접수 받으며, 최종 20명을 선정해 7~8월 중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작품 평가는 신세계문학의 현직 시인, 수필가, 평론가 등이 참여해 이루어지며 ▲금상 4명(70만원) ▲은상 8명(50만원) ▲동상 8명(20만원)을 선정한다.

기아차는 입상작을 신세계문학의 ‘운율마실’ 계간지에 실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입상한 청소년들이 향후 문학적 재능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에 나가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응모 부분의 순수 창작 작품 2편을 작성하여 접수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단, 해당 연령이더라도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응모가 불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2021년형 K3·K3 GT 출시



기아자동차는 20일 K3의 연식 변경 모델 ‘2021년형 K3’와 ‘2021년형 K3 GT’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1년형 K3는 주 고객층인 20~30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화하면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되는 2021년형 K3는 준중형 차급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버튼시동 스마트키와 인조가죽시트가 동시에 기본 적용됐다.

K3, 20~30대 선호 사양에 높은 가격 경쟁력
K3 GT, 5도어 단일모델 프레스티지·시그니처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운전석 파워시트·전동식 허리지지대,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뒷좌석 히트드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등을 스탠다드 트림부터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1.5% 기준 ▲스탠다드 1714만원 ▲프레스티지 1895만원 ▲시그니처 2087만원이다.

또 2021년형 K3 GT는 5도어 단일 모델이며 프레스티지와 시그니처 두 개 트림으로 운영된다.

기아차는 기존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던 운전석

파워 시트와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를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프레스티지 2187만원 ▲시그니처 2451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기본화하면서 상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사양을 기본 트림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며 “강화된 주행 편의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2021년형 K3는 준중형 세단 고객들에 더 큰 만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창간68주년
광주일보

중앙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서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방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누구 편입니까?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을 대변합니다.
지역신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보도
광주일보가 선도합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